군민일치
조선
주체112
(2023)
11
(810)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례 CONTENTS

특별소식

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소 식

6 ‖ 로씨야련방 외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

10 ‖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뜻깊게 경축

14 ‖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

16 ‖ 12월5일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

16 ‖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

18 ‖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진행

22 ‖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선수들

30 ‖ 결산분배의 기쁨 온 농장에 차넘친다

오늘의 조선

34 ‖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38 ‖ 수지선박생산자들

42 ‖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44 ‖ 대를 이어 산을 가꾸는 사람들

48 ‖ 꽃봉오리들

56 ‖ 대동강반의 이채로운 풍경

62 ‖ 꿀벌들이 늘어난다

66 ‖ 왕다래고장으로 불리우는 개성시

자 연

68 ‖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평금강

력 사

74 ‖ 력사유적 단군사

76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천문도 《혼천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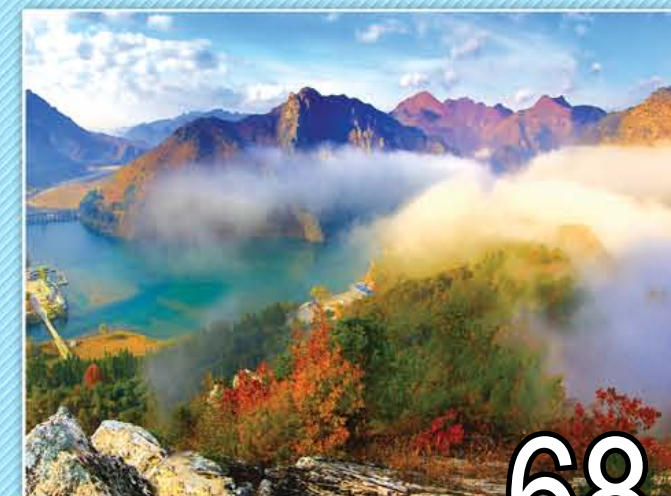
표 지: 화성거리의 주인들
뒤표지: 신평금강의 가을
편 집: 김정철, 김규성, 리명준, 조철주, 승 룡, 전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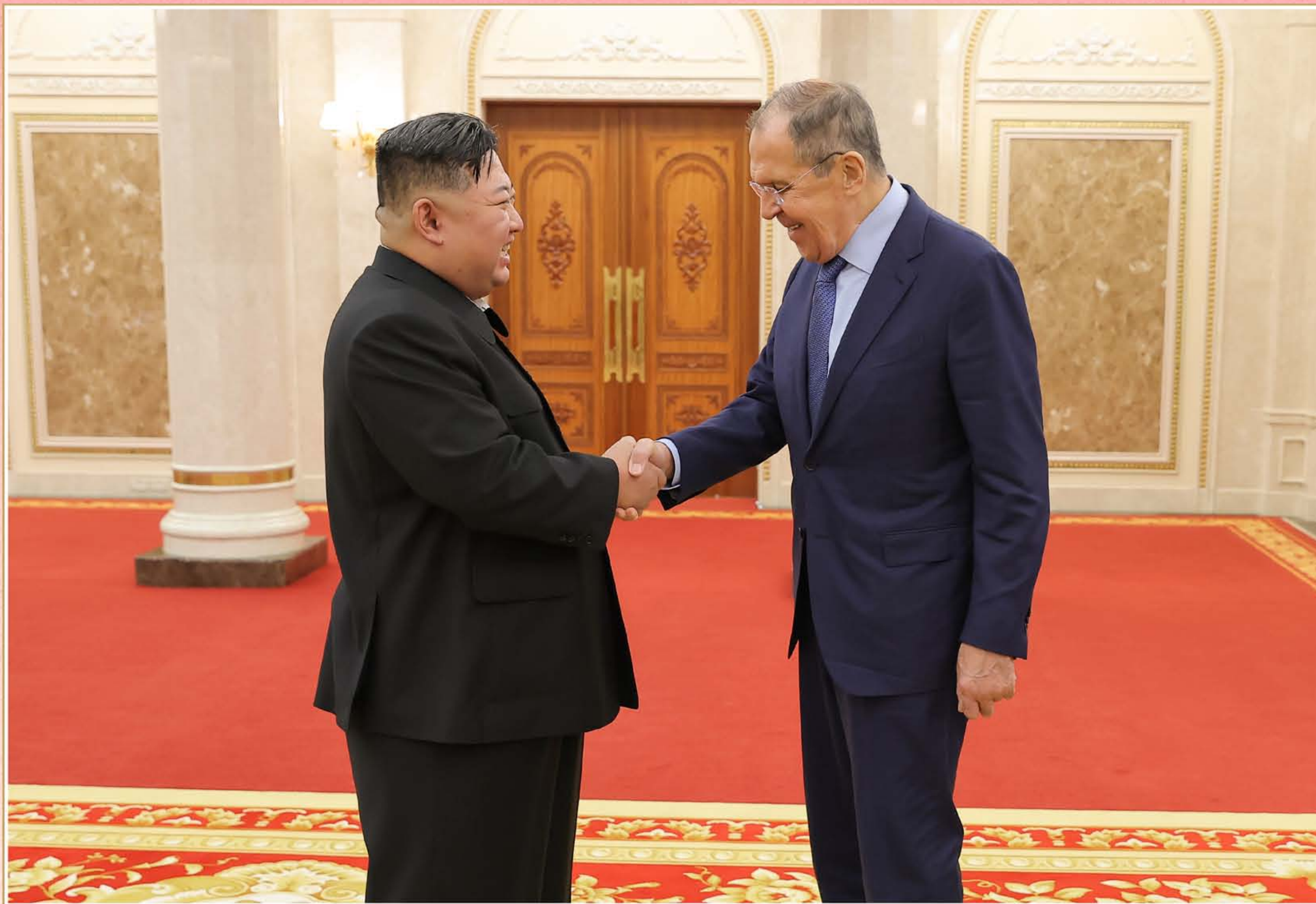
22

30

44

48

66

6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꼬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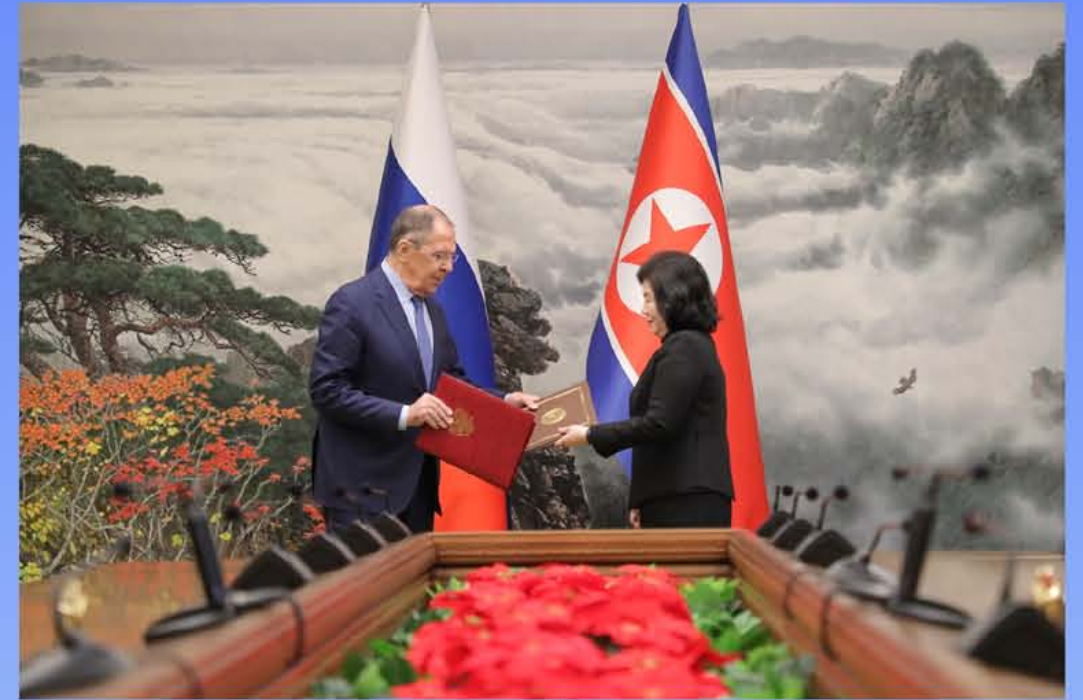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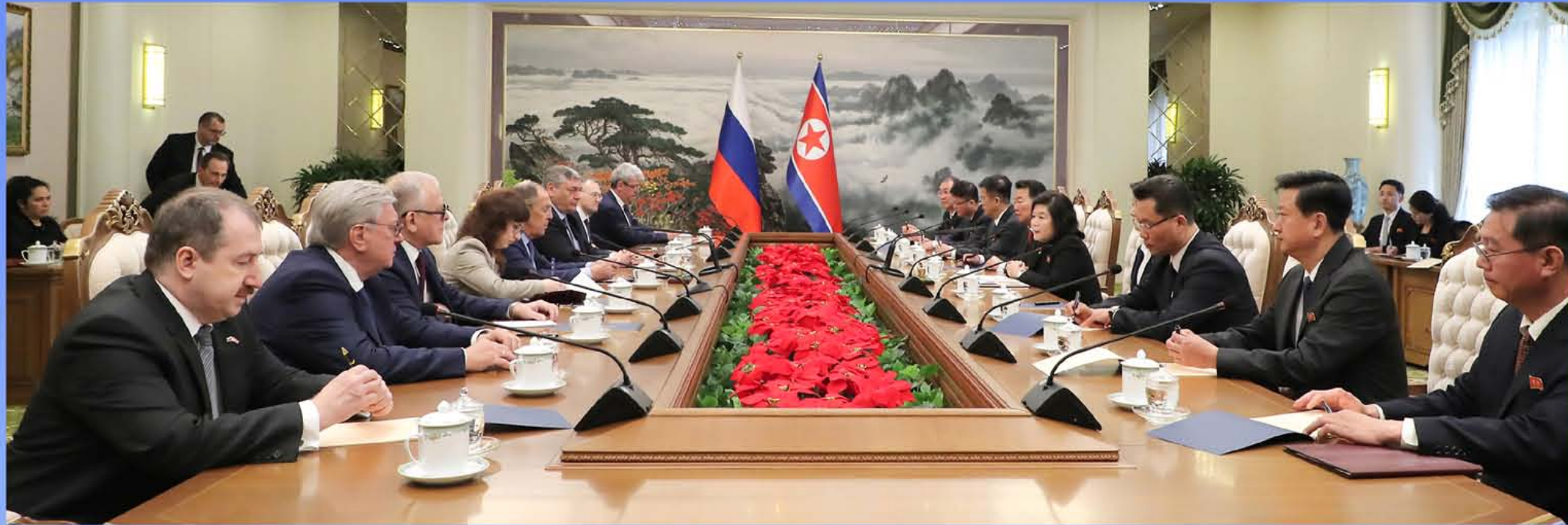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뿌찐동지와 형제적인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들의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9월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에 괄목할 자욱을 새기며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진 뿌찐동지와의 상봉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피력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련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련방 외무상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통적인 조로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선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가 10월 18~19일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8일 저녁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 연설한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과 교류협력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는 이번 방문기간에 조로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력사적인 합의에 따라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해나가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만족한 결실이 이룩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외무상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어 연설한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로조외교관계설정 75돐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로조관계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서방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방문이 쌍무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과시한 로조수뇌상봉과 회담의 합의리행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사이의 회담이 19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2023년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로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에 기초하여 국가간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회담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로씨야련방 외무성사이의 2024~2025년 교류계획서가 체결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상이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뜻깊게 경축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기세가 비상히 격양되고있는 속에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10월 10일 0시, 새날을 알리며 울리는 종소리에 이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률이 메아리쳤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국기를 정중히 게양하였다.

형형색색의 축포탄들이 일제히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불야경을 펼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군중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할 업적을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창건기념탑을 찾은 각계층 군중들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여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수놓아가는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천만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 경모의 정을 구가하였다.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수도의 곳곳에 펼쳐진 야외공연들이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등지에서도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뜻깊은 10월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를 더해주었다.

각지에서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들이 진행되여 명절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으며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도 명절을 즐기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남자배구경기, 종합교예공연, 축포발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진행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영양액비료공장이 지난 10월 4일에 준공되였다.

온실남새생산용영양액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은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함에 모든것을 지향복종시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령도가 낳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농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액비료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장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기풍을 발휘하면서 영양액비료생산을 위한 기술준비를 끝내고 공정별공사과제를 힘있게 다그쳤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와 련관단위들에서도 집단적혁신으로 짧은 기간에 건축공사와 시설물공사, 설비, 장치물조립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서부지구에 새로 건설되는 온실농장들에 영양액비료를 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면서 비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12월5일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

12월5일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12월5일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건설이 지난 10월에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기초화학공업 창설을 나라의 경제명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결정망초생산공정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완강히 내밀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내각과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필요한 설비,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12월5일청년광산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나라에 무진장한 회망초를 리용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탄산소다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의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

량강도의 여러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 진행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시대가 줄기차게 펼쳐지는 속에 나라의 북변 량강도의 여러 농촌마을들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김정숙군 송전농장, 김형권군 직설축산농장, 도농촌경리위원회 포성농장, 보천군 가산농장, 운흥군 심포농장, 풍서군 우포축산농장을 비롯한 백두대지에 펼쳐진 새 마을들은 량강도의 농촌을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리상향으로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공업발전-2023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진행

10월 25일부터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는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진행되고있다.

《경공업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고귀한 결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나라의 경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굳건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류,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공장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550여개 단위에서 개발, 생산한 670여종에 1만 2 000여가지의 제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개막식에 참가한 내각부총리 리성학은 개막사에서 이번 전시회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해질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도약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는 활무대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진 리명국, 방은심
글 강수정

경공업발전-2023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선수들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기계체조, 권투, 레스링, 력기, 사격 등의 종목경기들에서 11개의 금메달과 함께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도합 39개의 메달들을 획득하였다.

녀자력기 55㎏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강현경

끌어올리기에서 103㎏, 추켜올리기에서 130㎏을 성공시켜 종합 233㎏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세계기록, 아시아기록, 아시아경기대회기록을 갱신

녀자력기 49㎏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리성금

끌어올리기에서 92㎏, 추켜올리기에서 124㎏(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들어올려 종합 216㎏(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제1위를 쟁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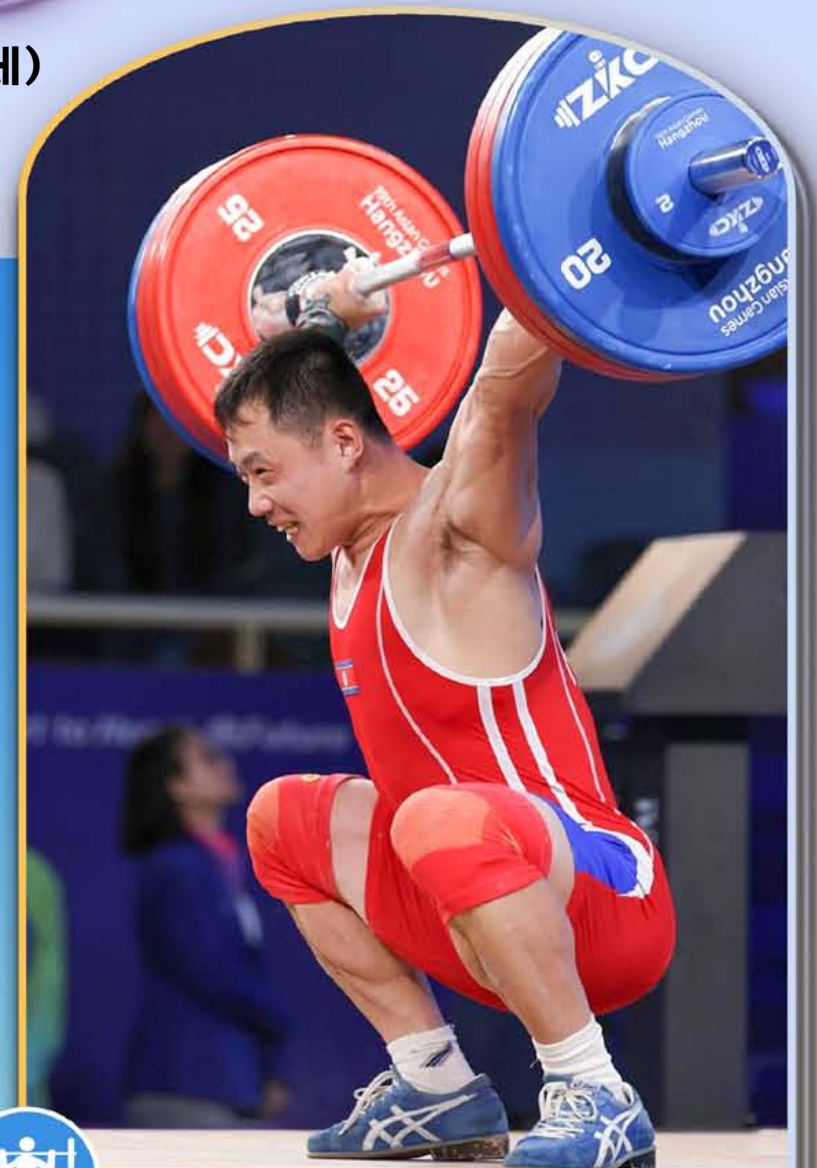
녀자력기 76㎏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송국향

끌어올리기에서 117㎏, 추켜올리기에서 150㎏을 성공시켜 종합 267㎏의 성적으로 제1위를 쟁취

녀자력기 64㎏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림은심

끌어올리기에서 111㎏, 추켜올리기에서 140㎏을 성공시켜 종합 251㎏으로 각각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수립하고 단연 제1위를 쟁취

녀자력기 59㎏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일경(가운데)

끌어올리기에서 111㎏(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을, 추켜올리기에서 135㎏(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을 들어올리고 종합 246㎏(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의 성적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

남자력기 81㎏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리청송

끌어올리기에서 169㎏(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추켜올리기에서 195㎏을 성공시켜 종합 364㎏(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으로 제1위를 쟁취

기계체조 녀자조마운동경기와 고저평행봉운동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한 안창옥

녀자권투 54㎏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방철미

녀자단체 10m이동목표사격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리지예, 방명향, 백옥심

레스링 녀자자유형 62㎏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문현경

결산분배의 기쁨 온 농장에 차넘친다

평안남도 숙천군의 열두삼천농장에 풍요한 가을풍경이 펼쳐졌다.

봄내여름내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등 영농공정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포전마다에 지성을 고이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관개공사와 해안방조제공사도 진행하여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 이곳의 농업근로자들이다.

최근에도 이들은 잘 익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지난해에 비해 20여일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마침내 흐뭇한 결실을 이룩한 긍지, 다수확농장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는 자랑안고 결산분배장으로 모여온 모두의 얼굴마다에 기쁨과 만족의 미소가 한껏 어렸다.

농악소리 드높은 결산분배장에서 사람들마다 다음해에는 더 많은 알곡을 증수하겠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사진 라평렬, 최원철, 리철진
글 김일진

《풍년가》의 선률속에 흥겨운 농악무를 펼친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흐뭇한 작황을 마련한 긍지와 자랑이 어려있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석회석자원이 무진장한 황해북도 상원군의 명당지구에 나라의 손꼽히는 건재공업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최근년간 생산능력확장 및 현대화공사를 훌륭히 결속한데 토대하여 최고생산년도실적을 거듭 갱신한 이곳의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산의 동음을 줄기차게 울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이 나래치고있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다량채굴, 다량운반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세멘트생산을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화천탄광, 일출봉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 원료, 연료매장지들을 확보하고 채굴 및 운반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본생산단위들도 기세를 올리고있다.

소성직장의 로동자들은 원료, 연료보장조건에 맞게 설비관리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여 가동시간을 최대로 늘임으로써 교대별, 일별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고있다.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도 개건현대화된 크링카분쇄 및 수송공정의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월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간련계를 치차처럼 맞물리는것과 함께 생산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대책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이 펼친 새로운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최근 국가적인 10대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였다.

사진 황정혁
글 최광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국가적인 10대최우수기업으로 선정

수지선박 생산자들

수지선박의 현대화, 다양화 실현을 위하여

강원도 통천군에 위치하고있는 통천지성수지선박공장의 연혁은 나라의 대규모조선소들과는 비교할수도 없을만큼 짧다.

그러나 공장에서 수년전 첫 수지고기배를 무어 조선동해의 어장에 진출시킨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이곳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중소형선박건조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수지배무이를 활발히 진행하여 조선업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열의 안고 기업소의 경영 및 생산활동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왔다.

오늘 공장에는 여러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설들과 장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력량과 수준도 창립초기에 비할수 없을만큼 크게 장성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용도와 크기, 형태의 수지배들을 마음먹은대로 건조해내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나라의 해양기후조건과 특성, 선박의 사명에 부합되고 선원들의 생활에 보다 편리한 새형의 배를 설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생산공정들을 보강하고 효률적으로 배치하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지구, 장비들을 새롭게 갖추면서 배무이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다.

우아하고 맵시있으면서도 든든한 공장의 제품들은 경제적 실리가 아주 큰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운영단위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총 길 이	18.6m	배 수 량	37.5t
설계길이	14.0m	주기관출력	140kW(190hp)
너 비	4.2m	속 도	12.0kn
현측높이	1.6m	승선인원	6명
흘 수	1.1m	어창의 체적	7.0㎥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조선에서 미래의 에네르기원천으로 주목되고있는 자연에네르기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양시에서만도 태양빛과 지열, 풍력 등을 리용하여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 록색건축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태양빛과 지열 등 자연에네르기로 조명, 랭난방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단위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태양빛발전체계와 지열설비 등의 정상운영에 큰 힘을 넣으면서 그 효과성을 나날이 증대시켜가고있다.

평양이동통신운영국에서도 자연에네르기를 경영활동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ㄷ자형의 기업소청사벽체와 지붕들마다에 건축양상에 어울리게 설치된 태양빛전지판들에서 나오는 전기로 모든 사무실과 설비들은 물론 문화후생시설들의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중앙버섯연구소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도입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의 살림집지구 등 여러 단위의 주민지구들에 설치된 태양열물가열기들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주고있다.

자기 단위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풍력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효능높은 새형의 소형풍력발전기들은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최광호

대를 이어 산을 가꾸는 사람들

북진지구의 산림보호원(당시)으로 일하던 아버지 강윤경의 뒤를 이어 오늘은 그의 자식들이 푸른 숲을 가꾸어가고있다.

평안북도 운산군산림경영소 북진로동자구 산림감독원 강영수의 집안은 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오는 가정이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주체42(1953)년부터 산림보호원(당시)으로 일하였던 그의 아버지 강윤경은 벌거숭이가 되였던 북진지구의 산들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첫 공훈산림공칭호를 수여받은 공로자로서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도 창작되였다.

아버지의 성실하고 근면한 삶은 자식들의 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하여 맏아들 강영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숲을 가꾸다가 순직하였으며 그후 북진체신분소 분소장으로 사업하던 둘째아들 강영수가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그가 산림감독원사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이곳의 산림은 여러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게 손상되였었다.

강영수는 산림조성계획을 다시 세웠다.

부족되는 나무모와 새 나무종자를 구하기 위해 머나먼 출장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돌을 추고 거름을 내서 결군집주변의 빈땅들에는 알곡이나 남새종자보다 나무씨앗을 더 많이 묻었다.

대를 이어 고향의 숲을 훌륭하게 가꾸려는 그의 이악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주체104(2015)년 강영수에게 공훈산림공칭호가 수여되였다.

그 다음해에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은 국가유용동물보호구로 설정되였다.

4년전 신의주농업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강영수의 맏아들 강철이 고향으로 돌아와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꽃봉오리들

- 대성구역 려명유치원을 찾아서 -

지금으로부터 6년전 려명거리의 준공과 함께 개원된 대성구역 려명유치원의 명성이 높아가고있다.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유치원에는 10여개의 교양실과 종합놀이실, 운동실,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이 이름나기 시작한것은 결코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서만이 아니다.

이곳 교양원들의 높은 교육학적자질이 그들에게 자식을 맡긴 부모들로 하여금 마음을 푹 놓게 하기때문이다.

최근년간 그림그리기와 서예, 바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재간둥이들을 키워내여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유치원에는 20여명의 교양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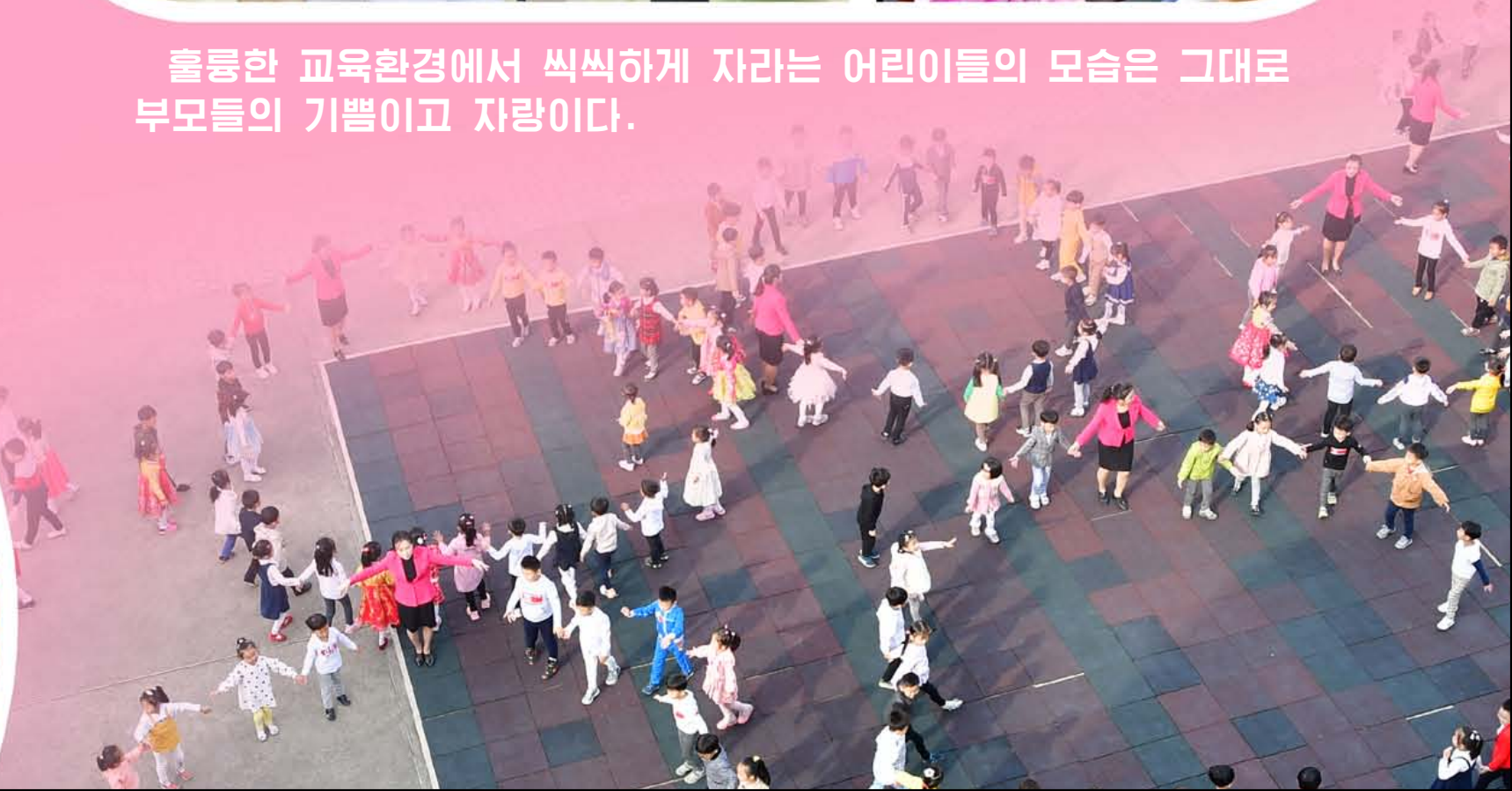
매 어린이들에게서 한가지이상의 소질을 찾아내여 계발시키자는것이 이들모두의 지향이고 목표이다.

부모들도 몰랐던 재능을 찾아내여 품을 들여 키우는 그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많은 원아들이 전국적인 서예축전과 예술축전, 뛰여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의 경연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언제나 새롭고 특색있는 교육교양방법을 탐구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장 류은혜와 교양원들속에서 모범교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새로운 교편물들과 기구들이 적극 제작도입되고있다.

3년전부터 유치원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전교육과 함께 피아노와 여러 현악기들에 대한 조기음악교육도 진행하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강수정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부모들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메아리

MEARI

《메아리》 상표를 단 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는 마이크만 있으면 TV가 있는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길동무로 되고있다.

2 000여곡의 노래를 입력할수 있는 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는 속도와 음정, 음량, 잔향조절과 악기소리변환, 목소리변조 등 여러가지 기능이 갖추어져있어 리용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노래를 부를수 있게 되여있다.

탁상마이크

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

다기능증폭기

손접촉식화면노래반주기

소리연필

4통로조음대
(방송자용)

고성기(방송자용)

대동강반의 이채로운 풍경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유람선정박장을 찾아서

수도의 중심부와 동평양지구를 잇는 대동강다리가까이에 유람선정박장이 있다.

이곳으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특히 휴식일과 명절날이면 늘 초만원을 이루군 한다.

여기에는 뽀트장과 운동실 그리고 청량음료를 봉사해주는 곳들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먼저 가닿는 곳은 물론 뽀트장이다.

여러가지 형의 뽀트를 탈수 있는 이곳에서 손님들 특히 청춘남녀들이 많이 찾는것은 쾌속뽀트이다.

한가족모두가 오붓이 앉아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는 원형유람뽀트는 로인들을 비롯한 중년이상의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이곳 종업원들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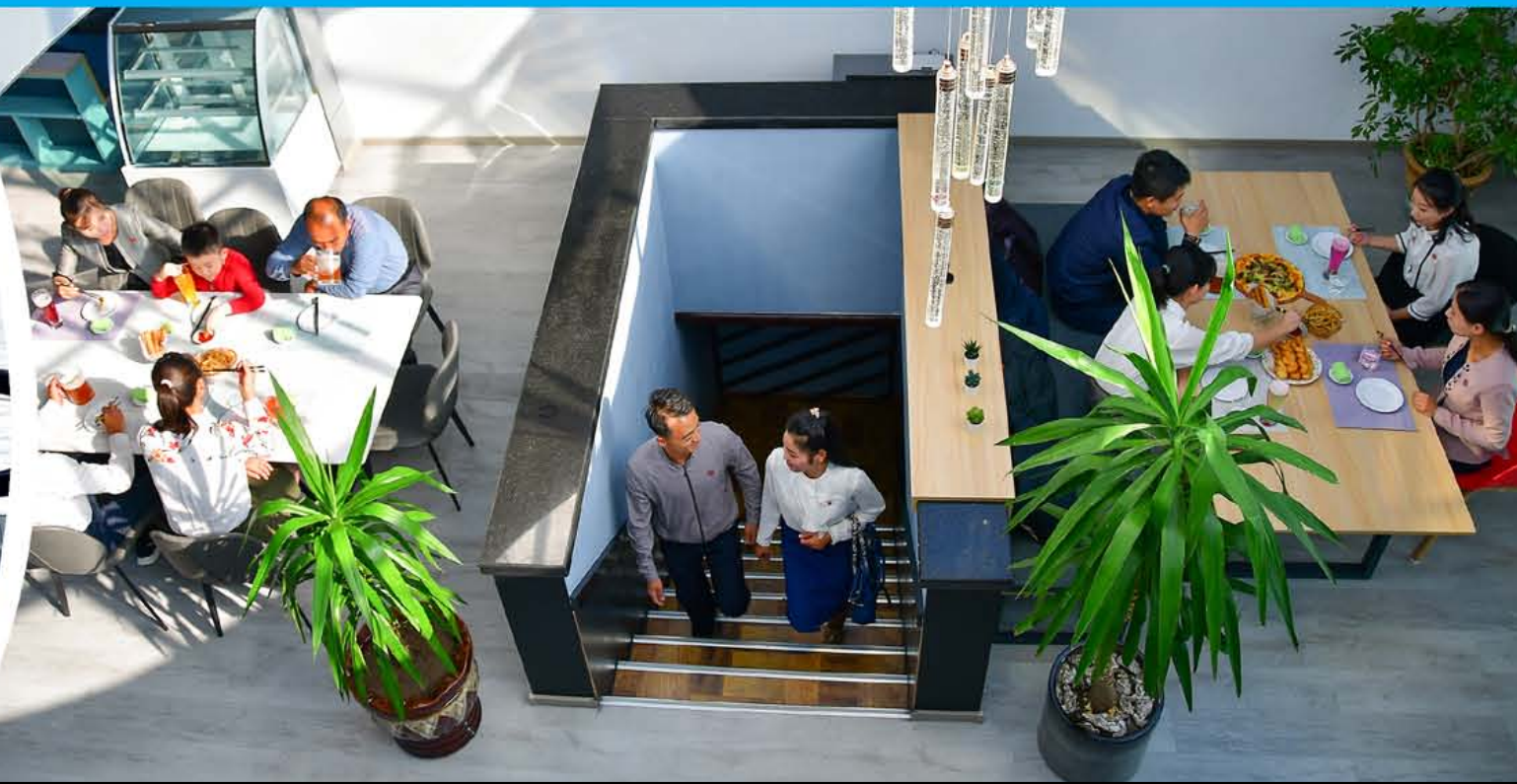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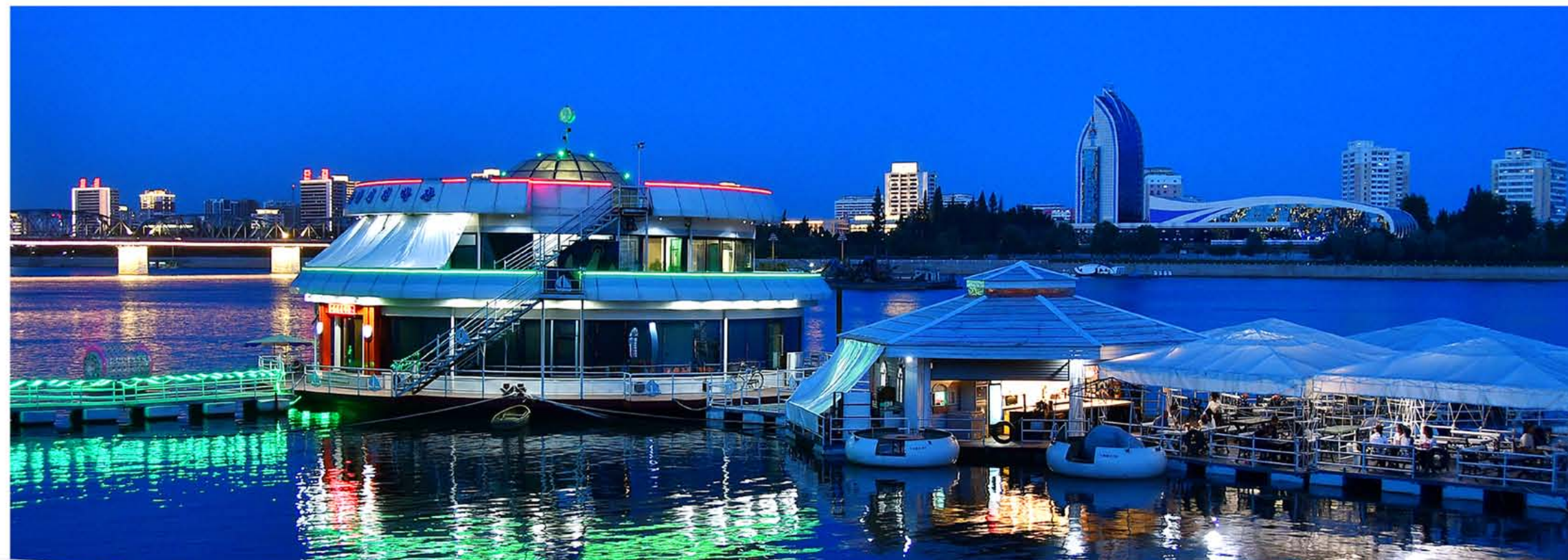
누구나 즐겨 찾습니다.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자식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운동실에서 여러가지 체육기재를 리용하여 체력단련을 하는 사람들도, 유람과 운동을 마치고 대동강반의 경치를 부감하며 시원한 청량음료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한껏 어렸다.

주체108(2019)년 11월에 개업한 유람선정박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흥성이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꿀벌들이 늘어난다

조선은 식물상이 매우 다양하고 같은 식물이라도 꽃피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꿀벌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다.

하여 조선에는 꿀벌을 치는 기업소들이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인 의암천연물기술교류소에서는 근 10년동안 꿀벌치기를 해오고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얼마 안되였던 벌통이 이제는 200개가 훨씬 넘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많으니 꿀벌치기가 랑만적일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꿀벌치기가 꿀맛처럼 달콤한것은 아니다.

이곳 꿀벌관리공들의 말에 의하면 년중 사양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계절이란 없으며 특히 꿀벌들을 진드기를 비롯한 각종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꿀벌치기는 이동사양과 떼여놓을수 없는데

이동사양은 매해 5월부터 10월초까지 진행된다.

근 반년이나 외지에서 생활하는것이 결코 랑만적일수는 없는것이다. 이 기간 꿀벌관리공들이 벌통과 함께 이동하는 거리는 무려 5,000여리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소의 꿀벌치기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장승식은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배웠다. 30대 청년시절부터 꿀벌치기를 하면서 해마다 많은 꿀을 생산하고 수십명의 《제자》들도 키워낸 아버지의 경력이 처음부터 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가끔 아버지의

일손을 돕는 과정에 장승식은 꿀벌치기가 단순히 보약재를 얻는 일인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풍요하게 하는 유익한 사업이라는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세계적인 꿀벌치기방법들도 파악하고 자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방법도 탐구도입하는 과정에 이제는 이 분야에서 모르는것이 없는 그이다.

올해에도 기업소에서 꿀벌들을 수십만마리나 더 늘이고 그로부터 많은 꿀제품들을 생산하게 된것은 모든 꿀벌관리공들의 노력과 함께 그의 풍부한 경험의 결과이다.

오늘 의암천연물기술교류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꿀벌치기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많은 사람들이 꿀벌치기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있다.

자연의 모든 향기와 정기를 담은 천연꿀

왕다래 고장으로 불리우는 개성시

개성고려인삼의 산지인 개성시가 최근년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다래고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시안의 해당 부문 연구사들이 개성을 비롯한 조선중부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킨 왕다래나무가 뿌리를 박고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다.

그때부터 시안의 많은 기관, 기업소들 그리고 가정들에서 왕다래나무를 부지런히 심어가꾼 결과 이제는 해마다 늦가을철이면 도처에서 흐뭇한 수확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왕다래나무는 꽃과 열매의 향기가 짙고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잘 가꾼 나무 한그루에서 100kg이상의 열매를 딸수 있다.

당분함량이 많고 비타민C와 칼시움, 마그네시움을 비롯한 영양물질과 함께 정유, 유기산 등도 들어있는 열매는 약재로도 효능이 높다.

왕다래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보고있는 개성사람들은 양묘장을 꾸려놓고 많은 왕다래나무모를 키워 여러 지방들에도 보내주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강수정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평금강

조선에는 세계적인 명산인 강원도의 금강산과 같이 금강이라는 표현이 붙은 명승지가 적지 않다. 황해북도의 신평금강도 그중의 하나이다.

신평군 도화동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이 명승지에서 기본은 계곡경치이다.

조선중부의 아호비령산줄기와 잇달린 이곳에는 진주계곡,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등 8개의 계곡이 있는데 개개가 모두 수려한 산림과 기암들, 폭포와 담소 등으로 절경을 이루고있다.

구룡계곡의 협곡을 따라 폭포와 담소, 기암들이 조화를 이루고있다면 금강계곡은 애기금강폭포, 진주폭포, 비단폭포, 오누이폭포, 형제폭포 등 형형색색의 폭포들이 많은 폭포골이다.

한 계곡에 들어서면서 보았던 풍경이 조금 올라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안겨오고 아무리 보아도 둘러막힌듯하였는데 내처 가느라면 또 다른 계곡으로 향하는 골이 나지고 새로운 풍치가 펼쳐진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마다 다양하고 절묘한 계곡미에 이끌려 시간의 흐름마저 잊고 마지막로정까지 가닿는다고 한다.

계곡들을 따라 여러 폭포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것은 노은포골의 노은폭포이다.

멀리서 보면 하얀 비단필을 드리운듯싶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거세찬 물기둥으로 안겨오는 이 폭포의 높이는 111m나 된다.

금강계곡에는 명승지적으로 제일 큰 담소인 금강소가 있다.

골마다 깊고 록음이 우거진 명승지 일대에는 산삼을 비롯한 약초들과 산열매들이 풍부하고 산짐승들도 많다.

평양-원산관광도로가까이에 있는것으로 하여 교통조건도 좋은 신평금강명승지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찾아오는 사람들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사진 김영일, 김혁철
글 박의철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평금강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평금강

신평금강에는 진주계곡,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등 8개의 계곡이 있는데 개개가 모두 수려한 산림과 기암들, 폭포와 담소 등으로 절경을 이루고있다.

력사유적

단군사

조선의 명산 묘향산에 있는 력사유적들중에는 단군사도 있다.

단군은 반만년전 조선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건국시조이다.

민족의 시조를 숭상하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던 사당인 단군사는 묘향산 향로봉의 남쪽릉선중턱에 있는 바위굴(단군굴)에 위치하고 있다.

단군굴의 좌우켠은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변두리로는 수백년 자란 박달나무며 참나무,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다.

단군굴의 높이는 4m이고 깊이는 12m이다.

이 단군굴안의 벼랑턱에 2개의 기둥에 떠받들린 단군사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고 하여 단군굴을 등천굴이라고도 전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단군굴이 있는 골짜기를 단군성동이라고 한 력사기록도 있다.

단군사는 정면 3간, 측면 1간의 합각식건물이다.

건물안에는 단군의 화상이 걸려있다.

단군사에서 남쪽으로 1㎞정도 떨어진 곳에는 단군이 무술을 익히던 단군대가 있다.

사진 류덕인
글 최광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천문도 《혼천전도》

unesco
Memory of the World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ertifies the inscription of

Hon Chon Jon Do (Complete illustration of the Astronomical Chart)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National Library of DPR Korea)
(Institution)

Pyongyang (Tow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24 May 2023 (Date)

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UNESCO

조선의 천문도인 《혼천전도》가 주체112(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18세기 조선봉건왕조의 천문기상관측기관에서 제작한 《혼천전도》는 《온 하늘을 그린 전체 그림》이라는 의미로서 당시 밤하늘의 별들을 한장의 종이에 투영하여 옮겨놓은 별자리그림이다.

여기에는 별자리들과 함께 당시의 천문학적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설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혼천전도》에는 당시까지 선조들이 달성한 천문학성과들이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는 한편 18세기 전반기까지의 서방천문학의 발전모습도 단편적으로 소개되여있다.

이 천문도는 당시 조선의 천문학발전수준과 더불어 동방천문학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현재 《혼천전도》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여있다.

ㄱ-23088010228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